

음 모집 광고



음은 '여성주의 문화실험 모임'으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감할 수 없는 갖가지 끼를 기존의 것들과 다르게 나만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다면 바로 여기를 찾아주세요.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예술적 재능이 다분한 사람이면 언제나 환영! 환영! 환영!!!이에요!

음에서 '쟁이정신'이라는 밴드를 만들었는데 기타리스트/드러머/보컬 등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도 모집합니다.

→ 급구! → 연주실력 불문!

연락처 : 015-7746-8477

예감

덧 붙여...

여성주의 DANCE TEAM

"아이윌 (I Will)" 멤버도 모집합니다!

막춤에 능한 분! 잘지 말고 오시길 ~

<음 보관용>

여성주의 공감/전을지~!

HE
Herzegovina
Montenegro

Slovenia

Zagre.

Bucharest

araja
Trst
Serbia
Belgrad

THE FLAMING HILLS~

Alps
ercegovina
Adriatic

Tinara
Tirana

너희에게 화염병이 있다면, 우리에게

Belgrad 불. 불. 불 타는 하이힐

derna
dardanelles

Belgrad
SLOVENIA

Ja
Zagre.

Bosnia
SA Sarajevo.

Tirana

BY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 불타는 하이힐 뽀뽀 순서 >

일. 잠시 소개글 - 왜 불타는 하이힐인가?!

이. 옴들이 이야기 - 1. '관계'

- 1) 대학에서의 신후배 사이
- 2) 엄마와 딸 사이

2. '문화'

- 1) THE FLAMING THEATER
- 2) THE FLAMING MUSIC
& MUSIC VIDEO

3. '생리'

; 월경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뽀뽀 피운
쏠쏠한 이야기~

삼. 요즘의 연세태에서는 무슨 일이?

사. 신랄하면서도 통쾌한 심리 테스트

- 우리 집의 가부장 지수는?

오. 무시 무시 여름 끝자락 낭랑 특집!

유. ^{PO}이정신 밴드 소개/ 여성제 폐막제 공연곡 소개

칠. 옴/ 쟁이정신 /아이월 모집 광고



잡지 소개글 - 왜 불타는 하이힐인가

오늘도 아이열을 신은 여자를 보았다. 또각또각. 어렸을 땐 그 소리가 미래에 대한 예찬론과 함께 부럽게만 들렸었다. 또각또각. 그때와 똑같은 하이힐 소리에 그녀를 바라본다. 무언가 불안하고 위태롭게 보인다. 작은 사이즈의 가느다란고 높은 굽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그녀. 그 작은 구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그 구두에 집중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파른 언덕에서, 높은 계단에서, 버스 앞에서, 평지에서조차 그녀는 자신을 그 구두에 맞춰 움직이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분명 그럴 것이다. 내가 그녀일 테니까. 한번도 우리는 그 높은 구두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도 쇼윈도에서 그와 비슷한 구두를 발견하고 욕 하는 마음에 한 켤레를 샀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유혹적인 쇼윈도 불빛에 그만.

우리는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그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냥 묻어두고 가끔씩 신경질적으로 일상에 대한 몽둥그려진 짜증스러움을 표현하곤 했을 뿐이다. 감정이 없는 이성만 존재할 수 있을까.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이제 우리는 그 작고 높다란 땀로는 제대로 세워 지지도 않는 위태로운 구두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보여줘야 한다. 감정적으로. 솔직하고 화끈하게. 아니, 죄 없는 그 구두 말고 그 구두를 만드는 회사, 아니 그 회사 말고 그걸 디자인한 디자이너, 음~ 아니야. 그 구두 신은 모습을 구경하려 하는 우리 주위의 많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 아이열이 우리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도 있음을, 어정쩡하게 지켜온 우리의 모습을 ^{다들} 다고 한다면 불을 지피려 높이, 그리고 멀리! 있는 힘껏! 쏘아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께 가뭇광생애 이 구두를 댈겐다." 여기에 좀더 감정을 살리고 싶다면, 무언가 더 말해주고 싶다면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선을 넘어도 좋다. 도대체 그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나. 잃을 것 없는 우리에게 정범까지 못할 선이 존재한다 말인가.

'불타는 아이열'- 여성주의 공감/전율지는 곳곳에 숨어있는 그 아이열을 찾아 불을 지피려 한다. 아주 감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고 그리 어렵지만도 않은 일이다.

「관계」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접점은 모두 다르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인 두 사람 사이에도 정확한 일치점이란 존재
하지 않는다. 모두 각자의 경험 속에서 그 지점들을 확인
하고 읽어나간다. 그래서 사람들과 맺게 되는 관계를 선볼리
예기하기가 어렵다. 혹 내 경험에 갇혀 엉뚱한 이야기만 주저
리, 주저리 늘어놓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
것이다. 근데 선배 언니가 말했다. 그런 너의 경험과 느낌
을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사람들과의 대화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연대에 입학에서부터 주옥 불편하기만 했던
여러 관계들...혹 내가 덜 사교적이라 그런건
가? 내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건가 걱정이
며 만나왔던 사람들...이제 우리에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들을 예부예보고 싶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
람이되
자.

캠퍼스 관계 분석!!! - 일명 뽀빠티 뽀한 관계들...

난 입학 이후 이런 인간들이 너무 싫었다.



어서
내게
말을
해봐!

유형 1. 입학하자마자 자정 오빠며 선배가 되는 남아들

학번이 안되면 생년 월일, 출신학교, 재수 여부를 따져 물어 기어코 '오빠'며
'선배'라고 불리워야 속이 시원한 족속들...한 과에 꼭 대어섯명씩 있더라...
그들은 여성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이 오빠가~"라는 말로 시작하기를 중
아하며, 그들과 약간만이라도 친해지고 나면, 마치 친오빠, 혹은 아버지와 같
은 태도로 자기멋대로의 배려나 주제넘는 간섭을 하곤 한다. "야~너 소개팅
꼭 시켜줘야 돼. 여기 연락처 적어." "이 오빠가 해줄게.", "자연아, 치마가
너무 짧구나. 안출니?",

잡은 전화걸로 자기 수하의 여학생들의 스케줄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들의 인
생 상담을 하기도 한다. "내일 수업 후에 시간 비워둬, 군대간 김수형 휴가나
온데, 내가 인사시켜줄게.", "오즘 무슨 고민 있니? 오빠한테 말해봐."

그녀들이 여성 운동하는, 혹은 자기 주장있는 여학생들의 고임에 빠질 때면
넌지시 경고를 하곤 한다. "그런 애들하고 놀지마, 인생이 피곤해져..."
물론 생일 챙기기, 과방에서 데리고 농담하기, 술마신 후에 데려다주기와 같
은 기본적인 매너를 잃지 않는다. 그들은 프로니까.

이렇게 관계가 한번 맺히고 나면 그 둘은 영원히 알 수 없는 오누이, 혹은
탈전하면 애인관계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미 그들의 관계에는 종속적이고
일방적인 연애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으니. 그들은 어디에 떨어뜨려 놓아
도 이놈의 알 수 없는 오빠 동생 관계를 맺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인물들의
공통적인 성격 특징은 녀살 좋다/ 유머있다/ 혼자서 쉽게 진지해진다/니
까....

그들은 어찌하여 자기가 모든 어린 여성들의 오라버니가 되어서 뒤통다꺼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세상 모든 여성들의 오빠로 사는 것을 제외하
고는 여성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 친구로, 동료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여러 유형의 관계가 있을진대...혹은 왜 할부로 같은 과,
같은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예의를 강요하고, 선배 행세를 하려는 것
일까? 관계란 자고로 상호간의 소통과 협의가 있어야 하터인데.

어느 날인가 지하철에서 쓰잘때기 없이 땀을 흘려오는 술취한 아자씨가 있었더랬다. 귀찮게 이것저것 묻고 자랑하다가 나와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된 아자씨... 갑자기 오버하며, "어~이거 우리 후배를 여기서 만나네. 이거 반강네, 내가 댕이야~ 학교 다닐 때 댕이야... 불라불라..." 왕 친한 척, 그리고 거침 없는 반담...

지가 왜 나와 선배란 댕이가... 왜 나에게 자기를 선배로 뵈어들일 의행이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는 것일까? 갑자기 우리 과에 "임하 하자마자 선배 오빠" 행세하는 댕댕이 오버래 되면서... 애들아! 너희도 졸업하고 저러꺼니? 아서라.



유형 2. 자라지 않는 영원한 새내기 여인들

그들은 대개 예쁘장하고 귀여운지라, 입학과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자칭 오빠에게 찍혀 있기 마련이다. 그녀들은 챙겨주면 챙겨주는 대로, 간섭하면 간섭하는 대로, 대학에서 선후배가 원래 그러려니 하며 급게 급게 자라난다. 가끔 자존심이 상할 때라도, 혹은 저 선배 완전 뽕포 아니야, 실을 때도 그녀들은 일언반구 항의하지 않는다. 왜? 그 "선배 오빠"들이 자기의 친분관계의 기반이므로... 다 그들을 통해 한 다리 걸쳐서 알고 지내는 터라, 그들과 관계가 끊기면 가차없이 왕따 혹은 영어로 아웃사이더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참는 수 밖에...

그녀들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여동생이었던 것처럼 마냥 자라지 않고 새내기적 감수성을 잃지 않는다.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졸업반이 되어도 그녀들은 언제나 수줍고, 소극적이고, 우아한 자태를 잃지 않는다. 과에서 언제나 댕댕이 목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애틀, 술자리 등에 참가한다. 그녀들이 주로 쓰는 말은 "어우~야~", "아니야", "하지마, 야~"

학년이 올라가면 위에서 언급한 "선배 오빠" 유형의 남자 후배들 역시 그녀들을 여동생 다루듯 하게된다. 그녀들은 대개 과에서 학회나 학생회들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3,4학년이 되면 연애 상대와 과 밖으로 돌거나, 조심하게 도서관에서 졸업 후를 예비한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아~ 슬프당~



<관계 분석>

• 여자 선배-남자 후배

: 대개의 남자 후배는 누나 알기를 동네 꼬마 알 듯 한다. 짓궂은 장난으로 친근함을 표시하려 하나, 대부분은 도가 지나쳐 버릇 없는 짓이 되곤 한다. 여자 선배에게는 주로 7~80년대의 인자하고 남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수줍음 많이 타고 나서지 않으면서 말게 모르게 도움을 주는 '누님' 타임이 요구된다. 농을 거는 남자 후배와 사귀게 될 경우 기존의 남녀 연애 구도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고, 처음에는 선후배 관계가 흐려지는 듯하다가 남자의 댕댕이 시작되면서 점차 주도권마저 남자 후배에게로 옮겨 간다. 시간이 가면 여자 선배를 타이르고, 둘 사이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 역시 남자 후배의 몫이 된다.

• 남자 선배-남자 후배

: 둘 사이에서는 주로 육지거리와 열차레 등의 가혹한 '사나이 놀이'를 통해 관계를 다지는데, 이를 세간에서는 '외리'라고 부른다.

입학과 동시에 과에서 가장 잘나가는 분위기 메이커들은 자신의 뒤를 이어 술자리나 애틀 연고제 등에서 주도적으로 과분위기를 이끌 후계자를 미리 찍어서 키우기도 한다.

또한 이 둘 사이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여자'. 신입생 여자 아이들을 챙겨서 남자 선배와의 자리를 주선하고, 연결시켜주고 등등 등... "야 제 괜찮은데."라고 남자 선배가 한마디만 할라치면, 우리의 남자 후배 눈치도 빠르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자기 선배가 여자 후배에게 술자리에서 뭉쓸 짓을 해도 당연히 눈감고 자신의 양심을 죽여야 한다. 둘 사이의 관계가 견고해질 수록 과문화는 퇴폐적이어지고, 집단적이어지고, 간택받은(?) 소수의 여학생을 제외한 나머지가 과 밖으로 나돌게 된다.

• 여자 선배-여자 후배

: 둘 사이는 다른 관계처럼 모델링 할 수 있는 전형적인 타임이 없다. 스스로들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도 여자들은 스스로가 "선배"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어색해 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새내기때부터 여자로서 대학에서 겪었던 많은 부담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후배들도 고스란히 겪을 것이므로, 둘 사이의 관계가 견고해

진다면 가장 많은 유익한 노하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자 새내기들이여~과에서 동아리에서 존경하는 여자 선배를 찍어서 미착 취재하며 친해진다며, 연애 관계보다야 더 짜릿할 터이지만, 평생에 남을 친구의 관계를 남길 수 있으리라.

• 남자 선배 - 여자 후배

: 딸이 필요 없다. 연애 시나리오 모방의 관계이다. 남자 선배들은 탕과 술, 가끔은 서비스로 레포트까지 대신 써주며 점수따기에 여념이 없고, 여자 후배들은 일당의 적채강도 없이 그 한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알게 된다. 그 선배가 자신의 대학생할. 그러니까 자신의 옷차림과 말과 행동, 인간관계와 학내 활동 등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이다. 집에 있는 오빠 어빠로도 부족해서, 밖에서 마저 자신에게 간섭하고, 자기 대신 결정하는 '가부장'을 하나 더 모셔야 하는 꼴이다.

- 여기서 다른 관계 유형은 물론 가장 저질이고, 가장 속먹어 빠고, 가장 흔한 유형이다. '어, 나는 아는데...'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패턴이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발견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VERY ME EVERY YOU - 복잡 타당한 모녀관계 분석

올엄마



난 올엄마계 여성주의 문화실현'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다. 못 마땅해 하실 것 같아서이다. 올 엄마는 다른 엄마와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에 전념하고 장학금 타오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여자아이로서 조신하게 가끔은 숨기 없게 행동하기를 바라신다. 올엄마는 항상 크게 터지는 나의 웃음에 대해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피부를 가꾸지 않는다고 주의를 주신다.

올엄마는 집안의 모든 일을 아빠와 오빠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에게겐 눈을 꿰뚫히면서 어쩔 수 없어 양보·희생할 것을 권유하신다. 가끔은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올엄마와 나와 의 가치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만다.

올엄마가 얼마나 좋은 본인가에 대한 녀두리는 그만 둘 생각이다. 자신의 엄마가 실은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나 역시 다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뒤지지 않는 엄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니까. 가끔 숨막히는 어른을 늘어놓으실 때를 빼고는 내가 그 어떤 모습도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한달 전의 일이다. 올엄마가 한번 집안을 뒤집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답답해진다. 올엄마는 정말 깔끔하신 분이시다. 하루에도 두 번씩이나 집안을 청소하신다. 그것도 진공청소기와 같은 기계를 사용하지도 않고 모든 것은 직접 당신의 손으로 청소하신다. 반면 난 좀 게으른 편이다. 난 며칠에 한 번꼴로 청소를 할 생각인데, 그 전에 지저분함을 참지 못하는 올엄마가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면서 다 치워버리신다. 그건 아주 죄송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바뀐 것이 거의 없다.

집이 뒤집혔던 날은 특별히 엄마께서 바쁘신 날이었다. 며칠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내가 치우지 않아-)더러워진 집을 보고 경악하시며 청소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그 날 손님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엄마는 물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난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돕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었다.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계셨던 것이다. 왜 내가 머리 정리를 해놓지 않았던가에 대한 꾸지람이 떨어졌다. 정말 죄송했었다. 엄마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대충 청소하고 준 배하라고 설득할 수도 없었고, 그 성격을 알고 있었던 딸로서 머리 청소를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그 때부터 시작된 엄마의 괴변은 나를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흥분한 울엄마는 논리적이지도 않는 정말 말도 안되는 말쑤를 하셨던 것이다. 또 울엄마의 흥분하셨을 때 습관은 계속 반복하시는 것인데, 정말 답답했었다. 거의 그대로 옮기자면 어렵다. "네가 왜 여자로 태어났겠니? 너 이미 여자로 태어난 이상 집안 깨끗이 청소하고 꾸며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게 온명이고....." 이런 정말 입에서 저절로 하느님 소리가 나오는 순간이었다. (읽는 당신들도 믿지 않을 지 모른다. 나 역시 충격이 대단했기 때문에..휴~)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그 당시 집에서 뱅둥거리고 있던 오빠를 가리키며) 오빠도 같이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었지만, 이미 흥분한 상태라 엄마는 계속 당신의 주장만 반복하셨다. 결국엔 어떻게까지 말쑤하셨다. "세상이 바뀌고 남들이 안그런다 하더라도, 난 너 그렇게 안키운다. 너 내 딸이고, 그런 이상 엄마말대로 살아야지." 이게 웬 말인가.. 정말 신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서 울엄마 말에 일일이 토를 달아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당황스런 말쑤를 쏟아 부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난 그 상황에서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전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지만, 그 상황 역시 울엄마는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뿐이었다. 그 답답한 고정관념에서 엄마는 언제쯤 탈피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내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

날 당황케 했던 말들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어자애가 뭐 그런 기탄을 배우고 그러니, 좀더 고상한 거 배워보지.." 또 (아는 남자애와 만나서 저녁을 내가 샅을 때) "무슨 어자애가 저녁을 사고 그러니.. 남자애도 그렇지. 매너가 없구나.. (사소한 부엌일에 관하여) "오빠는 스스로 밥 찾아먹는 거 안하는 게 좋겠다. 보기 안 좋잖니.. 어왕이면 집에 너가 있는데, 네가 좀 해주

는게 좋지." 와 같은 것들이다. 울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때마다 난 아주 발끈한다. 내가 그런 말들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엄마가 알게되신 것은 최근인데, 엄만 더욱더 당신의 의견을 주입하려 하실 뿐이다. 언제쯤 울엄마에게 나의 입장을 여해시킬 수 있을까? 엄마와 다른 딸의 입장을 말이다. 이렇게 난 가끔 엄마를 포함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내가 어자라는 어유로, 우리집을 휘감고 있는 가부장적 사고들 때문에.

THE FLAMING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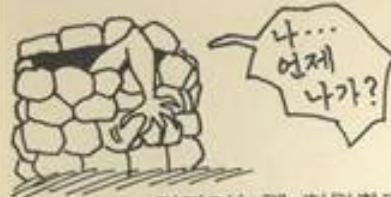
「건축무한옥면각체의 비밀」과 「링」의 신은경 바라보기~

혹시 위의 두 영화 봤어? 꽤 화제가 되었던 것들이니까, 아마 대강 내용들은 알고 있을거야. 알레전 전체 시인 이상에 남긴 시의 비밀을 파헤친다는, 흥미진진할 뻔하다가 이상하게 빠진 영화였고, 뒤에걸 뒤 소성로 워낙 유명했고 학교 내에서도 일본편으로 상영한 적이 있었으니까 따로 말 안해도 되겠지?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제목 봤으니 대강 눈치 짚을거야. 신은경이 나와. 것도 주연으로. 근데 또 하나 있어. 신은경이 기자라는 역할로 나온다는 거야. (우연 치곤 정묘하지?) 그러다보니까, 두 영화를 연속적으로 봤던 나로서는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 근데 비교하다가 난 엄청난 고통을 얻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 왜냐하면... 신은경의 역할들을 잘 살펴보니깐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여성으로서의 삶인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성이 되는 것인지 알게되었거든...

「건축무한...」부터 살펴볼까? 신은경은 정말 자신만만하고 당찬 기자야. 특종을 잡으려는 의욕이 가득 차 있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난 '와 멋있다...'를 언뜻하며 잔뜩 기대에 차 영화를 봤지. 근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뭔가 좀 이상해지더라? 내가 알기론 대한민국에서 언론사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도 여성으로서 입사합격 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거든? 근데 그런 시험 통과한 사람치고 너무 멍청하게 나오는거 있지. 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그런 바보들 기자로 뽑을 수도 있다는거 이 영화보고 참 알았어. (영화 내에서 중○일보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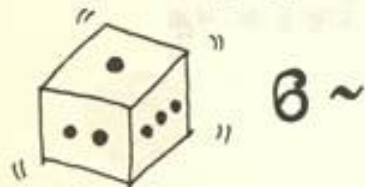
어쨌든, 이 영화에서 신은경은 온갖 바보짓 혼자 다 하고 고생도 바가지로 하지.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신은경 역할은 비명지르고, 못에 빠지고, 뛰어다니고, 구르고, 정벽에 대달리고.... 여런거 밖에 없어. (역시 기자라 체력 관리 하나는 끝내주게 한거 같애.)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건 남자 주인공 김태우 몫이고, 평소엔 똑똑해도 (아니 똑똑한 척해도) 위기 상황이나 중대 사건 발생시 여자는 멍청해지지. 그러면서 정벽에 대충대충 대들려서 남자의 구원을 기다리는거야. 어차피 나쁜 머리, 동통나서 쫓 당하는 것보다 좀 힘들어도 참고 기다렸다가 머리 좋고 힘 좋은 남자들이 구해주는걸



기다리는게 현명한거지 뭐. 그래, 여성은 힘없고 멍청한 존재지. 절대 남성들보다 똑똑해지려고 노력하면 안돼. 왜냐구? 그래야 남자들이 데리고 살기 편하니까. 그래야 남자들이 어려운 일 처리해주고 생색낼 수 있으니까. 고로,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땐 남성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머리 비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교훈~ (흑흑... 엄청난 가르침이지 않아?)

그 당에 「링」을 한번 볼까? 여기서도 역시 기자야. 좀 차이가 있다면 정지사 기자라는거. 글구 에 얼마라는 거지. 여기서 신은경이 '건축무한...'에서처럼 멍청하진 않아. 물론 남자 주인공(정진영)의 도움을 받기는 마찬가지지만, 정말 강한 캐릭터로 나오지. 근데, 똥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거야. 「링」에서의 신은경은 "강한 어머니"이지 "강한 여성"이 아니라는거. 좀 더 자세히 말해볼까? 신은경이 조카와 죽음에 의혹을 품고 조사를 하던 중, 그 어수룩한 비디오를 보게 되지. 일주일 후면 자신이 죽게되는 상황에서 살려고 뽀빠지는건 당연한 거겠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은경이 비디오의 저주를 풀기 위해 난리치게 되는 건, 바로 자신의 딸이 비디오를 보고 난 후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딸이 일주일 후면 죽게 된다! 이 때부터 신은경은 괴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지. 거의 잠도 안 자면서 온갖 정보 다 끌어 모으고, 분석하고, 배두나네 고향 집에 답사가고... 나중엔 우물에 들어가서 배두나 (물론 다 썩은 시체) 끌어 안고 위로까지 해 주지. 배두나에게 경피된,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길 바라는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주면서, 그녀의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주는거야. 여성 대 여성으로서 그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냐. 어머니로서 딸을 품어 안고 쓰다듬어 주는 거지.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비디오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 -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 을 알아 낸 신은경은, 비디오를 가지고 자신의 부모가 사는 곳으로 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비디오를 복사해서 보여주려 하는거야. 즉 신은경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강인함은 극에 다다라서,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부모를 죽여는 일도 서슴치 않게 된 것이지. 역시... 어머니는 여성보다 강한 것이야. 그리고... 「건축무한...」에서의 멍청하기 그지 없었던 여성은, 어머니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남성만큼, 아니 어쩌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지. 원작 소설 「링」에서는 남성이었던 주인공이 일본판, 한국판 영화에서는 모두 여성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 자체에서 온근히 어머니로서의 역할, 모성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원혼을 품고 죽은 영혼, 자식의 상



처를 쓰다듬는건 여성,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니까.

자.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고향, 그게 뭐지? 어제 경 장터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성은 명정하고 남성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살아남되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거야. (「건축무한...」의 상황에 비견되는) 이렇게 험한 세상, 악하다 악한 여성이 살아남으려면 머리비우고 똑똑한 남성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거고, 그나마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경」에서처럼) 어머니가 되어서야 가능한 것이다. 어머니가 되었을 때 여성은 능력도 인정받지. 에 키우는 능력.

난 영화 보고 나서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 자신의 삶을 반성했지. 어떡하
지 헛살았구나. 어제는 태도를 바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 착한 임대가 되어야지~ 오호호호~ 그래야 살기 편할테니까...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



THE FLAMING MUSIC & MUSIC VIDEO

<fatboy slim-praise you>

그들의 어설픜이 좋다.



사람들은 어설픜을 싫어합니다. 학창시절 '누구누구 나와서 노래해봐라' 하면 전 제가 노래부르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민망하고 창피함을 느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노래부르는 친구가 아주 멋지게 노래부르는 정도가 아닌 한마디로 어설픜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노래부르는 친구가 코믹한 제스처를 사출하거나 유머스런 표정을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자신이 잘 부르는 것 같아 프로 가수를 흉내내면서 열심히 불렀다면 그 민망함은 더했겠지요.

한 커튼한 극장 앞에 작은 어설픜 복장을 한 사람들이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갖고 나타납니다. 이내 그들은 fatboy slim의 praise you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동네 에어로빅 강에서나 볼 수 있는 복장으로 프로 댄서들이 추는 기교가 담긴 춤을 어설픜게 따라하며 춤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어설픜게 춤을 추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쾌한 웃음을 자아내지요. 너무 열심히 안드레 춤을 추는 그들은 순순히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 프로처럼 복장도 화려하게 입고 프로들이 추는 춤을 따라하려고 애썼다면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극장에 그들은 음악을 합니다. 음악 역시 그들이 겨누는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대로이지요. 그리고 촬영을 거부한 사람들은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배려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라인댄스(일렬로 줄맞추어 추는 춤)를 추는 장면은 정말 아름답지요.

그들은 모두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지식한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전업주부였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고정된 이미지를 버리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인 것이지요. 간혹 만화 주인공을 흉내내는 코스프레나 가수 흉내를 내는 것을 볼 때면 항상 속앓했습니다. 다들 어설픜고 하나도 닮지 않았었기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은 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더 솔직할 수 있다는 것 혹은 뽀신상에서 익명으로 자신을 더 바꾸기 쉽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다른 이미지에 입히고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요. 물론 그럴 경우 몇

가 어설픜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은 어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어설픜을 닮고 싶고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습니다.



여성은 생리기간 동안 약 30밀리리터의 월경혈을 배출시켜요!

하지만, 생리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은 혈액만이 아니예요. 폴리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체내 찌꺼기들이 생리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지죠. 바로 이렇게 생리가 몸 안의 노폐물들을 정기적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생리는 몸속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 여성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성여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피부도 좋고 예쁜 것도,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것도 생리가 여성을 건강하게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생리의 좋은 점은 그 뿐이 아니죠. 여성은 자신의 생리를 통해 건강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리가 멈추거나 색 또는 주기가 달라지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한다는 신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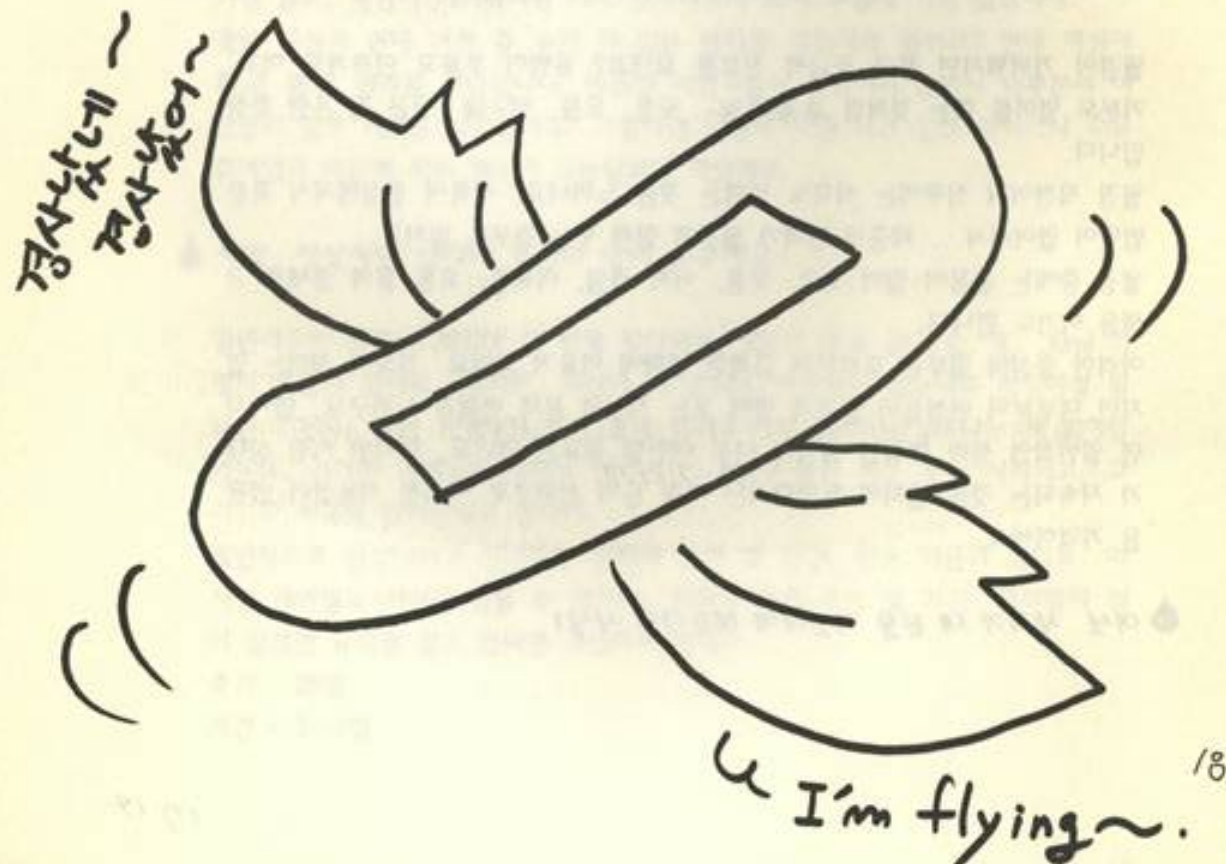
그러니...

생리는 불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거~!

잊지 마시길~

뱀맛을 붙이지면, 생리는 월경(月慶), 즉

달마다 있는 경사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



옛세대에서는 무슨 일이?

---연고전 특집!!!

1. 연고전 마지막 기차놀이 때,

"삼천궁녀 알몸 러쉬" 라고 띄어전 깃발을 보셨나요?

소문에 들자 하니, 작년에 "심은하파"가 초유의 인기를 끌면서, 올해에 그 뒤를 이은 "이영애파" 등의 사파들이 생겨난 거라고 하던데... 절대 우너지지 않는다는 불루 몽카스와 춘천 닭갈비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쟁반 문화의** 전수를 보여줬다는데... 여자를 섬지않고는 즐겁게 놀 줄 모르는 시나이같으니... 공대생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후문.

한마디로... 추하군요.

삼천대를 알몸으로 맞으면 정신을 차리려나..

2. 우리 학교 아카리카는 여전히

"후꺼시 장군"들과 "춤추는 고무 바비인형"들로 가득하더군요.

무대에 여지 아카리카가 등장할 때마다 아유니 휘파람, 혹은 "아줌마! 아줌마"를 연발하는 녀들... 거기가 무슨 너희 놀라고 만들어놓은 방무대인줄 아는감?

아... 가라개!

3. 이번에도 팔어먹을
"마초맨"의 인기는 여전했다.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자.

게이운동가 said

"예...마초맨이란 미국의 게이 그룹 [빌리지파퐁]이 동성애자라도 터프하고
우락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캐릭터죠."

정신분석가 said

"한마디로 연고전 때마다 고대의 사나이스러움, 쟁판의 저력,
남성스러움의 과시 등에 대해 남들래 부러워 하던
연세대 남학생들의 열등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학우 said

"마초맨? 그거 슈퍼맨 친구 아니었나요?
스파이더맨 사촌쯤 되는..."
뜻이나 알고 환호하는거
맞어? 뻔?

4. 학부제를 맞아하여

예를 들어 "고대 인문 E반과 연대 인문 2반" 식의
별 상관 없는 학생들간의 교과류가 이어졌는데...
전공도 다 다르기에 별다른 공통분모도 없는 상황에서 자연히 분위기는
연대 여학생들과 고대 남학생들간의 집단 미팅 분위기로 흘러
결국 연고제 기간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목소리..
"야! **대, **과 남자 애들 아주 폭탄이야.
물 좋다는 거 다 작년 얘기야...우이씨"
이러다가 연고대 집단 결혼식 해야하는거 아냐?
왕초에서처럼...?

당신집안의 기부장 지수를 측정한다!!!

*가부장 지수: 단지 그대가 딸내미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봉합서적 대우의
정도를 지수화함

당신은 왜 여성제에 참가해야하는가?
그 당위성을 밝히는 기부장지수!!!!

다음 문항에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이 질문은 집안에 아들과 딸이 동시에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임.

그런 가정의 아니라면 있음직한 경우 혹은 아버지나 다른 친척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좋음.)

1. 설날 아들 혹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빠나 남동생에게 더 많은 세뱃
돈을 주니까?

A 예 B 아니오

2. 오빠나 동생이 출출할 때 끝잘 라면을 끓여주니까?

A 예 B 아니오

3. 식사때 물을 떠오는 담당은 주로 당신이나 엄마입니까?

A 예 B 아니오

4. 아버지나 오빠, 남동생의 뼈까리한 수저가 따로 있습니까?

A 예 B 아니오

5. 아들은 태권도학원, 딸은 피아노 학원을 다니도록 권유받습니까?

A 예 B 아니오

6. 오빠나 남동생에게 생리통의 아픔을 호소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A 예 B 아니오

7. 엄마가 이들에게 빨랫줄에 널린 빨래들을 걷어오라고 시킨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A 예 B 아니오

8. 아들은 외박을 허락해주면서 딸은 절대 불가합니까?

A 예 B 아니오

9. 과일이 있을 때 주로 당신이나 엄마가 깎습니까?

A 예 B 아니오

10. 어디 여자애가 오빠(동생)한테 ...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A 예

B 아니오

11. 오빠는(동생은) 남자잖아 라는 충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A 예

B 아니오

12. 찬밥과 더운밥이있을 때 찬밥치리는 주로 당신이나 엄마의 몫입니까?

A 예

B 아니오

13. 밥을 퍼 담을 때 아들의 밥을 먼저 퍼 담습니까?

A 예

B 아니오

14. 삼계탕을 먹을 때 다리 두 개는 아버지와 아들의 몫입니까?

A 예

B 아니오

15. 성묘나 제사에 여자들은 접근 금지입니까?

A 예

B 아니오

16. 싸울 때 니가 참어야지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A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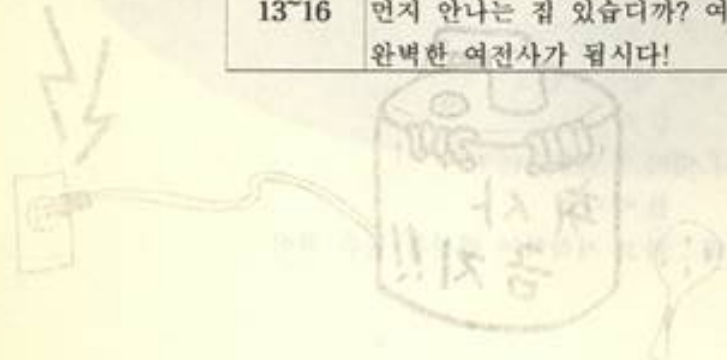
B 아니오



누가 먹을까?!
당연히...

‘아니오’의 갯수가

0~4	설명이 필요없는 대밭이네집. 인정합시다. 물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인걸 어쩔니까? 이번 여성제에 참가해서 뱃속깊이 박힌 남존여비사상을 흔들어봅시다!
5~8	대밭이네 집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농후한 집. 여성제에 참가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9~12	우리집은 남녀 평등이라고 주장할만한 집. 그러나 방심은 금물! 여성제에 참가해서 남녀평등 의식을 보다 확고히 합시다!
13~16	지금 그대로 그대 집안은 완벽! 그러나 떨어져 먼지 안나는 집 있습니까? 여성제에 참가해서 보다 완벽한 여전사가 됩시다!



무시 무시 이름 끝지랄 넘랑 특집!!!

“너! 조심해, 취사 놀러 버린다 !!”

신종 '복' 입니다.
임산부와 노약자...
특히 과거가 있는
성폭력범은
상당심
주의하십시오.

한 선배가 최근에 나에게 해준 꿈 얘기다.

나와 내 친구들은 주로 소소한 일상에 관한 개꿈을 꾸는 반면

그 선배는 평소에도 난해하고 상징적이고 그 선배의 무의식이 궁금해지는

그런 꿈만 꾸기로 유명한 선배였다.

그러나 이번 꿈은...

선배가 집에 있다가 아님 동아리 방에 있다가 아님...모르겠다.

원래 꿈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니깐...

하여간 어딘가에서 뜬금없이 강간범을 잡았다.

참! 꿈에서 마저 강간범을 잡다니 직업병이 아닌가 싶다. ^^;

하여간 그 강간범을 잡은 다음 선배가 했던 조치가 가관인데,

글쎄 그 강간범을 전기 밥솥에 가둬버렸단다. 허걱~

그리고는 잠시 무슨 물일이 있었던지, 밖에 나가면서

후배들에게 그 강간범을 맡겼는데...

터프한 선배 곁에는 역시 터프한 후배가 있는 법...

지켜보던 후배들은 작당을 하고는 그 전기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눌러 버렸

단다.

대단하쨌?~

잠시 후 돌아온 그녀

전기 밥솥에 취사 버튼이 눌러 져 있는 것을 보고는 질겁을 해서

“야~ 죽으면 어떻게려고 그래?” 라고 말하면서

전기 밥솥에 다가가

너그러운 표정으로

취사로 눌러져 있는 버튼을

보온으로 바꿔 눌렀단다.

보온이나 취사나...



하여간 이 꿈을 널리 전파하여 천하에 모든 강간범들이
전기밥솥을 볼 때마다 몸서리를 치고
자신이 찢겨 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하철에서 쏴 때 없이 람의 몸 더듬으며 헉헉 거리는 너!
십대는 애 먹지로 끈고 강제 추행하는 너!
조심해...자꾸 깨보면 뭐사 눈러버리는 수가 있어.....



응징의
손가락!



정신정신(爭異精神) 소개 - 우리는 다르게 싸운다!!

99년에 입학한 애들 네 명이 있었어. 다들 대학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 없었지. 술 마시고 놀러다니고... 근데 말야, 뭔가 허전하더라 말이지. 나만의, 우리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좁더라 말야. 대학 오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켜, 그래서 우린 밴드를 만들었어. 우리들의, 여성의 목소리를 맘껏 내보고 싶어서. 내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나의 모습, 만들어진 것이 아닌 본연 그대로의 모습, 그녀의 목소리를 찾고 싶어서. 그러려면 이전과는 뭐가 달라야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없애며 왔던 시각, 관념들을 버리고 새롭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신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과 싸워나가기로 했지. 정신정신(爭異精神)은 그렇게 시작된거야!

멤버는...

메니저겸 드러머 - 이다
기타 - 모비 & 진진
베이스 - 새음
보컬 & 차기 드러머 - 달리 ... 이렇게 다섯!

* 특별출연: 코러스 - 독지, 백댄서 - 해라

멤버들이 모인 후 우린 뭘 불러야할지 고민하고 있었어. 그런데 말이지... 어느날 갑자기 여성주의 여신이 우리 정이들에게 역사하셨어. 그러면서 예쁜 파리(Pretty Fly)를 한 마리 보내주셨지. 걱정하던 우리에게 그 파리 완, "괜찮아. 다 잘될거야.(It's Alright)". 이런말을 하지 않겠어? 하지만 우린 그래도 불안했지. 그래서 우리가 뽑은 목록을 보여주면서 뭘 부르는 것이 좋을지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구. "두 번째 노래. (Song 2)". 그 순간 정이들이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니, 다 꿈(Dreams)이었더라구...

...그래서 우린...이번 공연 때 이 노래들을 부르기로 했어~!

the Offspring - "Pretty Fly"
Bandits - "It's Alright"
Blur - "Song 2"
the Cranberries - "Dreams"

10월 8일, 연세대학교 제2회 여성제의 문화제 판이 벌어집니다. 정신정신 의 정식 데뷔 무대! 놓치면 평생 후회할걸~

우어우어 ㄹ~ㄹ.ㄹ

Jim Jim.
인사이드 기타 + 터닝메탈 Motion
But! 거대한 판악 연가



다들 저 포터
... 그대가 좋아하는 포터!!
P.S. ↓ 버디의 친구 이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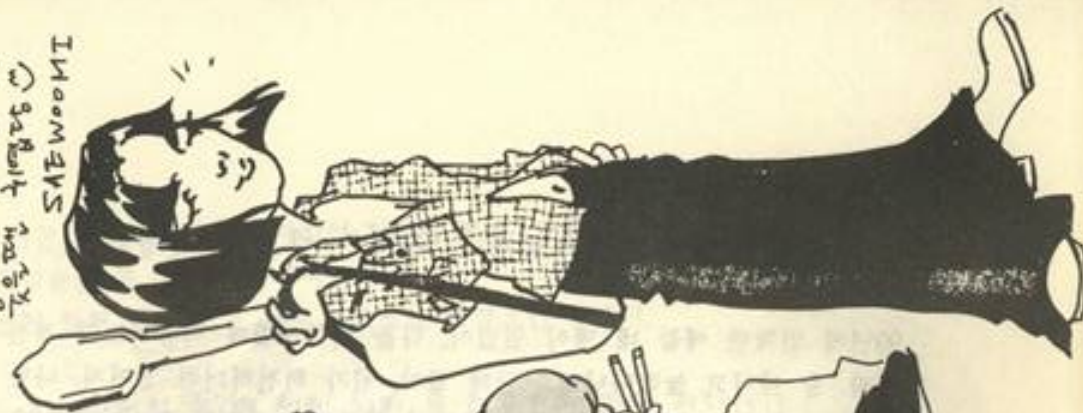
IDA

오늘도 너의 내일은
무엇을 상상하든
부채꼴의 포터도
배운다



ITALI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STEWART

HERA



하하하하
...
그 리 사 랑 은
너무 많 음

궁금하면
이 래 데 쿨
오 시 기

좋은 친구
계 랑 없 이
착 음 해 주
우 입

P.S.

그 립 은 연 두
애 가 그 립 음. ㅎ



NOBY

또 다른 기타!
무대보 + 개광으로 뭉치 베일녀...
얼굴이 궁금하면
공연에 오시길 ~